

##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대학교육

장승옥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대학은 커다란 양적 성장을 해왔다. ‘한국의 사회지표’(『교육 통계연보』, 1993)에 의하면, 1970년도 4.9%였던 대학 졸업자가 1990년도에는 14.2%로 20년 사이에 세 배나 증가했다. 이제 대학교육은 과거 소수 지도자의 양성에서 점차 다수의 전문인을 배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인의 양성을 강조하다보니 시장논리에 의해 기능인의 배양이 각 학교의 관건이 되고 취업률이 높은 학교는 세칭 명문대로, 그렇지 못한 대학은 삼류대학으로 나뉘어, 취업률로 소위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판가름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교육이 실용적 가치에 따라 직업인, 기능인의 양성에 지나치게 주력하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화될 대학교육이 미래사회에서 학문과 산업을 선도하던 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훗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폭넓은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시절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때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로, 가장 주요한 과업은 통합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이 표현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직업의 선택이며, 대학교육에서 중시되는 과제도 직업과 관련된 정체성의 확립일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80년 65%에서 1993년 52%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반 이상의 대학 졸업자들이 장래에 실업을 경험하게 되며, 일생 동안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직장을 옮기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증가된 직업과 직종의 수는 커리어의 탐색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따라서 대학 시절에는 한 직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분야를 개발해 나아가는 것이 좀 더 미래사회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많은 대학에서 도입·

---

시행되고 있는 복수전공제와 학부제는 그 활용 성과에 따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떠한 형태의 대학이든(5·31 교육개혁안은 다양한 대학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 본연의 모습인 연구하는 과정이 중시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대학의 교육내용은 작업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차원을 넘어서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교수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가 하는 논리와 인식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과정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정답이 있는 시험공부를 해와서인지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이다. 대학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기 다른 이유를 통찰하는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부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과제물이 적고 학점이 후한 인기강좌에만 몰릴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교육풍토가 이수한 과목들의 평균 학점과 함께 선택한 과목들의 성격이 중요한 평가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일부 대학에서처럼 수강 지도교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표는 삶의 질을 고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안목을 키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기능인으로서의 지식교육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내야 한다’는 의지, 그리고 ‘더불어 하는 것이 좋다’는 협동심을 키워주는 것이 학원과는 다른 대학교육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 계획하고, 각자의 일을 분담하며, 시간을 맞추어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배우고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평가제에 의해 소위 경쟁력 있는 대학에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대학 개혁정책은 보완되어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도외시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학만을 육성하는 정책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경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지방대학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문을 닫게 될 경우는 결국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약자에게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정책적인 배려로 경쟁력이 약한 대학을 우선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공존하는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장승옥/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등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와 동국대 강사를 거쳐 현재는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Cultural Influences on Drinking Practices among People of Japanese Descent", "한국 청소년 또래집단의 특성"의 다수를 발표하였다.